

격려사

단풍으로 물든 운악산과 국립수목원이 만산홍엽(滿山紅葉)을 이루어, 봉선사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만추절경(晩秋絶景)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노란 은행잎들이 수행자의 발길을 반기는 이곳 봉선사는 예로부터 교종갑찰(敎宗甲刹)이라 하여 경, 율, 론 삼장을 비롯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연구하는 면면한 가풍을 이어온 사찰로 교종의 근본도량이자 모든 학승들의 정신적 고향이었습니다.

이러한 가풍은 근대에도 이어져 대장경 한글화라는 큰 물줄기를 열었습니다. 최초의 불교 사전을 편찬하였고, 큰법당이라는 한글 편역을 최초로 봉안한 곳도 이곳이며, 능엄학림을 설립하여 교종본산으로서의 위상을 현재에도 확고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조의 업적을 계승하여 월운 조실스님께서서는 한글대장경의 완간을 이루고 종단과 한국불교계에 의미있는 회향을 하셨고, 밀운 회주스님께서서는 봉선사를 오늘날과 같은 대가람의 모습을 갖추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오늘 취임하는 정수스님은 물론 모든 후학들은 이와 같은 위상을 더욱 드높여야 하는 당연한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봉선사의 주변은 서울의 위성도시로 거대화되고 사통팔달의 큰 도로가 감싸는 곳으로 급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길이 하나 새로 나고, 아파트 한 동이 새로 건립될 때 지금과 같은 변화가 이미 예측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변화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한 장의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해가 장차 저물어가는 것을 안다’는 옛말과 같이 작은 조짐에서 미래의 커다란 변화를 예견할 수 있으며, 부분적인 현상에서 본질적인 추세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치입니다. 이제 봉선사를 둘러싼 모든 여건은 미래의 더 큰 물결로 흐르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에 여유롭게 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정수스님께 임명장을 수여하던 자리에서 ‘봉선사는 용주사와 더불어 한수 남북을 담당하는 주요한 교구본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한강유역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수 이북은 서

울의 부도심 역할은 물론, 남과 북이 공존하고 상생하자는 시대의 희망에 대비하는 최일선의 거점으로 그 역할이 매우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봉선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소속 말사들의 활동을 바르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공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변화를 읽어내고 그에 앞서 대응하는 주도적 역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공심과 원력이 없다면 조화로움도 화합도 실속 없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이는 교구를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기에, 모든 사부대중의 신심과 애종심 고취에 커다란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정수스님께서서는 작금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금껏 수행정진과 교구화합에 매진해 왔기에, 교구는 물론 종단의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한번 정수스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봉선사 교구의 모든 사부대중들이 정수스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교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뜻과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2011)년 11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